



에이즈치료제 '비라셉트' 출하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에이즈 치료제인 화이자의 '비라셉트' 일부 배치에서 불순물인 '에칠메실레이트' 혼입량이 미국 FDA 등의 권고기준치인 0.6PPM을 초과(0.1~10PPM)한 것으로 확인돼 잠정적으로 출하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원료 중 혼입되는 '에칠메실레이트' 양을 낮추기 위한 제조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안전성 정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에칠메실레이트'는 DNA를 변형시켜 암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전독성물질로,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인간에게 발암성 가능성이 있다는 그룹B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라셉트에 대한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 제공과 함께 제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 2007. 8. 27〉

UNAIDS,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이즈 문제에 대한 새로운 활력 요구

글로벌, 2007년 8월 20일 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대외 기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이즈 프로그램에 국가 자금과 인적 자원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에이즈 대응 정책을 유지함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UNAIDS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프라시다 라오 국장이 오늘 말했다.

제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에이즈국제회의(CAAP) 개막 회의에서 라오 국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에이즈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에이즈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예산은 에이즈에 할당된 기금인 미화 12억 달러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서의 기부금으로 차액을 메우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에이즈 발병률

에이즈는 더 이상 불치병 아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의사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Acquired Immuno Deficiency Syndrome, AIDS)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을 때, 에이즈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불치의 병이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적당한 면역물질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1996년 에이즈 바이러스를 죽이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에이즈에 전염된 후 면역결핍증, 또는 합병증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계속 줄어들었다. 새로운 약이란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들은 바이러스가 세포 유전자로 침입하는 데 필수적인 '역전사 효소'와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효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역전사 효소를 공격하는 치료제를 '역전사효소 억제제', 단백질 분해효소를 공격하는 치료제를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라고 부르며 '역전사효소 억제제'는 다시 뉴클레오사이드 계열과 비뉴클레오사이드 계열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지원으로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에이즈정보센터 관계자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 RNA의 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에이즈로 진행을 수십 년간 지연시킨다면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수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당뇨병 환자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혈당을 엄격히 조절하듯이 에이즈 감염자도 RNA수를 엄격히 조절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에는 약효가 훨씬 더 좋은 에이즈 치료제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보다 더 탁월한 효과를 가진 약제들을 개발하면서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던 에이즈 퇴치의 길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뉴스메이커 이강봉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위원 : 2007. 8. 8〉

은 낮은 수순을 유지하고 있지만, 피푸아뉴기니,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

"HIV 예방과 치료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고,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안주에 대해 경고하며 라오 국장은 말했다.

라오 국장은 HIV 예방 치료 및 보호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역 목표를 달성하려면 HIV 예방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방해요소가 되는 법률 및 사회 상식에 맞서는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분명히 정의된, 다각적인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발레아시아, 중국, 인도의 폐해 감소 정책과 태국 정부의 예방 노력 활성화, 캄보디아의 동성애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에게 대한 구제 활동 등을 칭찬하면서 라오 국장은 HIV 감염인에 끄는 낙인과 차별적인 법률이 여전히 지역

(UNAIDS 보도자료 : 2007. 8. 25)

국내 에이즈 진단기술 국제수준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HIV진단 국가표준 심혈심로서 'HIV·AIDS진단시험(HIV 열정학적 검사) 과정'을 국제규격(ISO·IFC 17025)으로 표준화시켜 한국인칭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AIDS 진단시험에서 최고인 정확도를 보충하기 위해 검체채취부터 결과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제품질규격에 따라 수행하며 직원자격 및 교육, 장비 및 시설,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품질경영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검토와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주치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의 향후 HIV 열정학적검사법 이외에도 에이즈감염자의 질병진전지표의 하나인 면역기능검사와 환자의 치료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HIV RNA 정량검시 분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 병·의원, 혈액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약 700여개의 HIV 실험실을 대상으로 에이즈검사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숙련도시험(외부정도평가사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도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HIV 진단분야 국제규격도입을 통해 보건소, 병원 등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HIV 검사능력 향상과 HIV 감염진단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국제적으로 HIV 진단시험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7. 07. 31)

MBC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에이즈 인식, 고정관념 변화에 75.4% 영향"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율 비시청자보다 10%이상 높아"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은 매년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 드라마 <고맙습니다> 시청 후의 에이즈/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율을 알아보고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5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드라마가 일반인의 에이즈/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의 변화에 미친 영향정도는 응답자의 75.4%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나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를 통해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시청소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17.3%,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7.7%, '에이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서'는 5.3% 등으로 나타났다.

'고맙습니다' 시청여부에 따른 에이즈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에서 드라마 시청경험이 있는 경우는 73.5%, 비시청자는 62%를 보여 에이즈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이즈 감염인과 식사 할 수 있다'란 질문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62.6%, 비시청자가 51.2%로 나타났다. '에이즈 감염인이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 질문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71.1%, 비시청자는 60.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항목에서 '고맙습니다' 시청경험자가 비경험자 대비 긍정적 태도를 더 보인 것으로 나타나 드라마 시청여부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2007. 7. 11)